

# 전쟁·분단 아픔 딛고 도전·변화 모색한 화가들

## 방구석 1열 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컬렉션 하이라이트' <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는 미술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투자로서의 미술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향한 관심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이 무섭게 발전했고, 미술관과 박물관들 또한 앞다퉈 VR·온라인 전시 등을 선보이며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특히 전시는 눈에만 보이는 예술의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편하고 일상적으로 작품을 관람하고 접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 시대, 방구석 1열에서 직접 즐기는 다양한 온라인 전시를 찾아 소개한다. 첫 번째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의 '하정웅컬렉션 하이라이트'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개제한다.

### 컬렉션 통해 보는 한국 근현대미술 주요 흐름 재일교포의 삶·추상적 회화 녹아든 작품 눈길

동강 하정웅은 '미술 작품 1만 점을 기증한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1993년 광주시립미술관 개관을 시작으로 무려 2,063점의 작품을 기증했다. 이에 광주시립미술관은 하정웅 컬렉션을 온라인 VR 전시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정웅컬렉션 하이라이트'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주요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4부로 기획됐다.

1부의 주제는 '이상과 망향'이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과 분단에 따른 차별, 아픔, 그리고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염원을 그린 재일교포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작품은 조양규의 대표작 '창고지기' 연작이다.

해방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1950년대 일본 화단에서 활동하며 재일 한인들이 처한 공핍한 삶과 민족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리얼리즘 작가인 만큼, 두터운 철문을 표현한 거칠고 날카로운 선과 면이 그 당시 부조리한 사회상을 피부로 체험하게 한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상황을 전해 듣고 그린 1955년작 '목이 잘린 닭'은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중들의 모습이 보이

는 듯 처량하고 스산하다.

전화환의 '춘향의 재회', '전쟁의 낙오자' 등에서는 고국에서 일어나는 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춘향의 재회'는 마르크 샤갈의 작품 '마을 위에서'를 연상하게 할 만큼 그 참혹한 배경과 달리 포용하는 두 남녀의 진한 사랑이 느껴진다. 작품 속에 남과 북의 재회와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작가는 이들이 입고 있는 한복을 통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재일동포로서 자신의 근원과 정체성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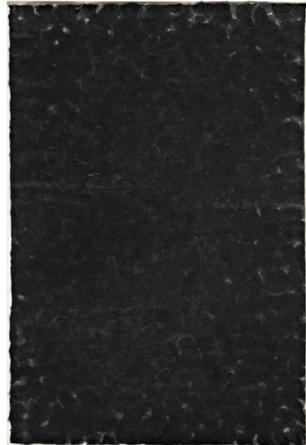
또 다른 제1세대 재일미술인인 송영욱의 작품 '갈립(귀국선)', '삼면경'에서도 재일동포로서 살아가는 개인의 번뇌와 복잡한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부 '모더니스트의 도전'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1970년 해외로 진출해 세계 미술의 흐름을 수용하고 매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등 국제 미술계와 조응하며 도전과 변화를 추구했던 한국 현대 미술의 1세대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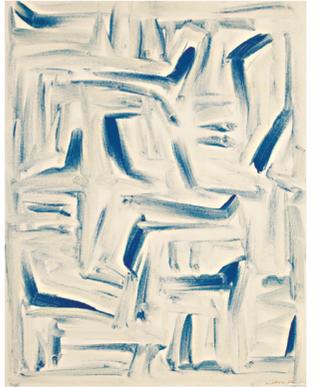
50-60년대 초 일본 현대미술관에 선구적으로 등장한 관인식의 작품들을 만날 수



조양규 작 '창고지기'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관인식 작 'Untitled 무제(흑)'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이우환 작 'East Winds'

있다.

그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작품은 그가 본격적으로 추상화를 발표하기 시작한 1977년작 'Untitled 무제(흑)'. 미법과 그림 뒤에서 칠을 하는 배채법 등이 변형된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흑색이 아닌 작품 속 미묘하게 다른 색들의 점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활동했으나 재일작가라는 사실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군사정부가 끝나지 않은 한국에서도 좌파 성향을 띤다

는 이유로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히 발표할 수 없었던 그의 고뇌와 철학이 '흑색'으로 표현된 다양한 색 속에서 읽혀지는 듯 울퉁불퉁한 느낌의 캔버스에 질감과 일

정하지 않은 패턴들이 한데 모여 주는 일관되지 않은 일관성의 느낌과 리듬감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이우환의 'From Point', 'From Line'과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Winds' 연작 중 하나인 'East Winds (동풍)'도 전시됐다. /오지현 기자

연필만으로 굵고 지우기를 반복한 후 남겨진 패턴이 특징인 그의 초기 연필 묘법 작품 '묘법 NO.5-82'. 마치 무엇인가 굵직한 듯 울퉁불퉁한 느낌의 캔버스에 질감과 일

정하지 않은 패턴들이 한데 모여 주는 일관되지 않은 일관성의 느낌과 리듬감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오지현 기자

## 광주에 뿌리 내린 이들이 말하는 '진짜 광주'

###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광주에서 문화를 한다는 것' 발간 서울부터 프랑스로까지 타지 출신 기획자 20명의 이야기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6개 기관이 서울, 부산, 창원 등 국내부터 미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에서 건너와 문화 동지를 틈스무 명의 문화 여정을 담은 책 '광주에서 문화를 한다는 것'을 출간했다.

'광주에서 문화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광주에 정착하게 된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20대부터 50대까지, 직장 때문에, 전시대 공연에 참여했다가,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등 남녀노소를 넘나들며 모두 다른 이유와 계기로 광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주에 터를 잡고 뿌리를 내렸다. 그들이 바라본 광주의 모습은 어떻게. 모두의 의견이 다르지만 그들이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회적 아픔이 큰 만큼 치유를 향한 연대와 공동체의 힘이 강한, 즉 슬픔이 곧 큰 아픔이자 강력한 힘, 즉 아이덴티티가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광주에 대해 조금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지로서의 자부심을 넓히기 위해 울타리를 깨고



외연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다. 광주 시민들이 광주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은 광주 시민에게 '광주라는 도시를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측은 "흔들려온 뿌리 내린 이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돼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지현 기자

### 빛고을국악전수관 수강생 모집 민요·판소리 등 과정별 선착순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77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문화학교는 내달 7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블, 해금, 정가 등 9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은 가야금, 해금 2개 강좌로 운영된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방문 및 전화신청하면 되며, 각 과정별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 문체부 '이야기 할머니' 1천명 모집

오는 28일까지...근대기록문화 조사원 300명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옛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과 근대 기록자료를 발굴·조사하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300명이다.

올해 '14기 이야기할머니'는 지난해 인원의 2배를 선발하며 만 56-74세의 한국 국적 여성으로 이야기 구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재능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28일이며 1차 서류심사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예비 합격자를 결정한다. 예비 합격자들은 4-10월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다. 선발된 이야기할머니는 11월부터 현장 실습을 거쳐 5년간 거주 지역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시작한 '근대기록문화 조사사업'은 사라져가는 근대기록자료를 보존하고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이 있는 만 50-70세의 한국 국적 중장년으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21일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3-5월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6월부터 거주 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 총 24회 활동한다. /연합뉴스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 名家

기능성 속옷의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밀" 있습니다.

아모리온

브라+슈트+거울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울+래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뜨, 루디아

블랙+사비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품평회 1등

6트러져 있는 실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차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차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